

Special Issue II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1st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가 오는 11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4일간 서울 광화문 미로 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처음 개최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며 앞으로 건축사가 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변변찮은 현실에서 영화제는 건축사에게 의의가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축영화제는 건축을 부동산의 가치로만 보는 세대를 바로잡아,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과 건축사의 역할을 대중들이 보다 쉽고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몽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영화제에는 4일간 <렘 콜하스 Rem Koolhaas: A Kind of

Architect>, <안토니오 가우디 Antonio Gaudi>, <마이 아키텍트 My Architect : Louis Kahn>, <마천루 The Fountainhead>, <프랭크 게리의 스케치 Sketches of Frank Gehry> 등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또 부대행사로 UCC 건축공모전과 영화감독 및 건축사의 강연회가 계획됐다.

아울러 개막식은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영화배우 및 감독, 건축계 저명인사, 학계 및 기타 유력인사, 기자단(문화부) 등의 인사가 참석해 영화제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축하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F팀은 이와 같은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건축사회원과 건축관련 인사, 관련학과 학생들에 대한 공감과 동참을 위한 대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알리려 본지에 특집 대담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대담



좌장
김형수
문화홍보위원장
주.CDS 건축사
사무소 대표



최호정
운영위원
주.아키마루 건축사
사무소 대표



신호근
부집행위원장
주.넥스트 건축사
사무소 대표



강병국
운영위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건축사



유영식
부집행위원장
영화감독 <오감도>



한선희
운영위원
영화제 프로그래머



김형수_요즈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축계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서울국제건축영화제라는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어떻게 보면 건축영화제가 건축사협회의 시급한 현안을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대 국민 홍보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 국민들이 건축사라는 브랜드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 전문적이고 문화적인 브랜드로 인식할 때 건축사협회와 건축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협회가 추구하는 목표들을 이룰 수 있다. 건축영화제는 장기적으로 대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행사이다. 오랜 준비 끝에 이번 11월 19일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어렵게 추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계 전문가와 영화계 감독, 영화제 전문위원께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어떤 방향으로 꾸려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 달라.

한선희_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풀어야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영화 산업계의 전문 기자로 오랫동안 일해 왔고, 영상 미디어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기도 하다. 영화를 볼 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시각적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공간 디자인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단순히 영화 속 인물이나 줄거리 등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심미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감독들이 건축사들과 협업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는 작품들을 건축예술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싶어서 건축영화제에 함께하게 됐다.

강병국_건축사로 일하면서도 건축 관련 영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글을 써왔다. 건축계에서 건축영화 마니아로 많이 알려져서인지, 때로는 내가 건축사인지 영화계 인사인지 주객이 전도될 정도다.(웃음) 사실 5대양 6대주에 모두 건축영화제가 있다. 아시아에는 이스탄불 국제건축영화제가 개최되고, 한국영화는 물론 중국, 일본, 인도 영화가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건축인들이 영화에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개인적으로 건축의 대국민과의 소통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영화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영화제가 건축적인 내용을 담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포맷이라는 점,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건축영화제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4년째 준비를 해서 올해 미약하나마 첫 번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호근_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주 보는 편인데, 실제 김형수 위원장을 만날 때 건축영화제 준비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공감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 건축영화제가 일반인들에게 건축사를 알리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우리는 흔히 건축사라는 직업을 의사나 변호사에 비교하게 된다. 의사는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변호사는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하는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사는 일반인들한테 좋은 공간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중적 홍보가 많이 미약한 것 같다. 의사나 변호사들은 저마다 TV 프로그램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국민건강이나 법적 문제 해결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그에 비해 건축사들은 일반 대중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다. 이런 현실은 건축사들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건축은 단순히 어떤 건물의 외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것을 완공하기까지 고민의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건축영화제는 건축을 건축물이나 부동산의 가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과 건축사의 역할을 대중들이 보다 쉽게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호정_동의한다. 건축영화제의 목표는 건축사에 대해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건축사라는 직업은 경제적 도구라든가 생필품 도구 속에 묻혀있었으며, 따라서 그 진정한 역할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전혀 인지되지 못해 왔다. 다른 전문직이 비해 사회적 위상이 미약한 상황이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건축사들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도구의 역할이 아니라 문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 할 것이다. 이 문화적 역할을 통하여 건축의 부가가치를 사회 전반에 인식을 시키고 건축사의 위상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건축이 있다는 점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인식을 선진화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한다.

유영식_나는 영화감독이며 김형수 위원장의 부탁으로 영화제에 참여하게 됐다. 아마 이 영화제에서 내 역할은 추진력 있게 행사 실무를 집행하는 데 힘을 쏟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건축과 영화가 만나는 건축영화제가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봤다. 기본적으로 영화제는 첫 번째로 영화를 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안의 이벤트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이뤄내는 데 필요한 것은 예산과 준비기간, 그리고 이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싶다.

김형수_개인적으로 건축의 대국민과의 소통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영화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이미 많은 건축사들이 건축문화 제라든지 건축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들이 더 관심을 갖는 코드가 뭘까 고민하다가 대중매체와 밀접하면서도 건축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능성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러다 보니 영화제가 건축적인 내용을 담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포맷이

라는 점,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건축영화제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 국내에서도 수많은 영화제들이 어떤 단체나 지방정부를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것이 대한건축사협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4년째 준비를 해서 올해 미약하나마 첫 번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강병국_김형수 위원장과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영화제를 준비한다는 것이 단순히 마니아들의 욕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또 돈에 의해 좌우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이번 행사가 기폭제가 되어 첫 테이프를 잘 끊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들 중에서도 건축사 출신들이 있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아모스 지타이 감독은 <에덴> 같은 작품에서 영화와 건축의 고리를 흥미롭게 풀어내간다. 또 유명한 건축물이 등장하는 영화들도 많지만, 일반 관객들은 그에 대해서 잘 모른다. 최근에 개봉했던 <인터내셔널>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찍었는데, 많은 일반 관객들은 그런 부분을 눈여겨 보지 않아서 그 건축적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하물며 <맨 인 블랙>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도 구겐하임 미술관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영화제가 아니면 볼 기회가 없는 영화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야 할 것 같다. 건축영화의 고전인 <마천루> 같은 작품은 반드시 상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유영식_이번 건축영화제는 좋은 영화를 소개하는 데 집중해야 할 듯하다. 물론 예산 규모 때문만은 아니지만, 비교적 작은 규모로 치러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우선시하며, 사실상 아주 많은 돈을 들이고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렵게 구성해놓은 영화 속 공간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공간들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 공간을 만드는 건축사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좀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는 첫회 영화제에 적합한 행사를 만들려면 상영작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강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는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인공을 따라 관람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우선시하며, 사실상 아주 많은 돈을 들이고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렵게 구성해놓은 영화 속 공간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건축을 전공한 뒤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작품을 할 때는 세트나 공간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한다. 이번 건축영화제는 그런 공간들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 공간을 만드는 건축사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좀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선희_첫 회에는 프로그램에 큰 욕심을 내지 않고 국내에서 상영이

된 적이 없지만, 해외영화제에서 중요한 건축과 영화의 접목지점을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모을 생각이다.

영화, 또는 미디어를 매개고리로 관객들이 건축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영화제 첫 회 때 소박하게 해야 될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한다.

신호근_국내 건축사를 주제로 하는 영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건축은 많은 발전을 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흔히 건축이 대중적으로 인식되는 데 있어서 개발이라든가 건설적 접근방법은 꽤 수준이 향상돼 있다. 하지만 문화 예술적인 관점에서 건축디자인 분야 등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중들한테 멀어져 있다. 또 대형건설회사의 아파트 브랜드는 상당히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설계한 사람들, 즉 건축 분야 자체의 브랜드는 대중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강병국_학생들 대상 강의 커리큘럼에 '건축과 영화'라는 주제를 넣은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네가 생각하는 미래를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는데, 대체로 영화감독들이 흔히 설정하는 디스토피아로서의 미래 도시를 따라하였다. 영화제가 좀더 복합적인 상상력을 불러넣음으로써 이런 학생들의 창의력을 배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또한 건축사에 대해 관객들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 등을 통해서 소개되는 건축사의 이미지도 편협하거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에도 아파트 현장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게 많이 가공되어 있다. 건축전문가가 일단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유영식_사실 영화나 드라마에는 판검사나 의사가 주인공인 작품들이 많다. 그래서 대중들이 더 그쪽 세계에 대해서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에 비해 건축사는 조금 뜬구름처럼 비춰진다. 설계하는 건축사들은 흔히 '꼼꼼남, 초식남, 소심남' 등으로 묘사되곤 한다.(웃음) 이번 영화제로 건축사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호정_드라마를 쓰시는 작가들에게 건축사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건축사들도 드라마에 종종 나온다. 한데 건축사에 대한 인식은 너무 조그만 틀 안에서만 보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는 주인공들의 연애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적인 자유 직업군은 얼마 되지 않는 데다가, 건축사들은 흔히 연애할 시간도 없는 인물로 다뤄지곤 한다.(웃음)

한선희 영화계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계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다. 건축영화제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건축계의 중요한 행사가 될 수 있지만, 영화나 미디어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건축을 미디어와 접목시킨다는 게 굉장한 잠재력과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특히 요즘은 국가적으로도 모든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선진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장려되고 있는데, 건축과 영화 또는 미디어를 접목해서 사고하고 그에 걸맞은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세련된 작업인 것만은 분명하다. 가령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영화학자들이 공간이나 건축을 주제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영화 장르로 볼 때도 필름 누아르는 대표적으로 도시 공간 자체가 그런 장르 연구의 주

다른 영화제들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의 하나다. 어떻게 하면 건축영화제가 다른 영화제 못지않게 비용 대비 독창성과 창의적인 특징을 갖고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의 심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가령 영화 소개와 더불어 영화를 만드는 사람과 건축을 하시는 분들을 잘 조합해서 관객들에게 서로의 작품 세계에 대해 알리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영화감독이나 배우와 건축사가 만나서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행사를 발판으로 2회 때 더욱 좋은 영화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맞게 행사를 잘 치러야 할 것이다.

1회 영화제에서 건축이나 건축사의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 회가 거듭될수록 도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회가 우리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경제 개념을 갖고 마케팅을 적극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건축계의 선후배들이 마케팅 개념으로 우리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고 우리 자신의 안목이 더 많이 깨어났으면 한다.

제가 되기도 하고, 또 현대 유럽의 모더니즘 영화에서도 도시를 매개로 인간의 감정의 소외나 피폐함 등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하버드나 MIT 등에서는 건축을 주제로 한 영화만을 주제로 연구하는 교수들의 책을 꾸준히 내기도 한다.

김형수_대부분 건축사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나 보유하고 있는 정신적인 자산에 비해서 국민들이 건축과 건축사들을 이해하는 폭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는 것 같다. 이번 영화제가 건축계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확실한 장이 되었으면 한다.

유영식_영화 제작에서 중요한 준비과정 중 하나는 장소 헌팅, 즉 로케이션이다. 영화에 적합한 장소를 찾고, 없는 장소를 만들고, 또 필요한 장소를 개조하는 작업이 모두 포함된다. 영화감독들은 미술이나 세트 감독과 함께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영화 속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진 예산 안에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용할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그만큼 영화가 공간을 다루는 방식, 건축적 사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인들이 건축사 분들과 너무 교류가 없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한선희_결국은 관객들에게 영화에서 보여지는 건축 관련 요소들을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축과 밀접한 영화들은 환경과 공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많다. 1회 영화제에서 건축이나 건축사의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 회가 거듭될수록 도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호근_협회 차원에서 앞으로 영화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틀을 통해서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접근 가능성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건축사사무소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브랜드 있는 사무소는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지금 국내 대규모 사무소들이 1,000억 매출을 넘는 사무소도 있어 상당히 다양화돼 있다. 거기에 비해서 건축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는 건축 잡지 외에는 매우 제한돼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언젠가 우리나라 건축사를 주제로 한번 영화를 찍었으면 하는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올해는 시간상 안 되겠지만, 국내 건축을 소개할 수 있는 영화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유영식_이번 영화제로 교류가 이루어져서 다음 영화제에서는 우리 건축사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공간을 찾아가는 영화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 건축사와 건설현장을 따라가면서 찍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놀란 적이 있었다. "저런 것은 우리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라는 반성을 많이 했다. 다음 영화제에서는 개막작이든 스페셜 섹션이든 건축사분 시리즈를 여러 명의 감독들이 찍고 영화를 통해 함께 토론하는 작업도 해봤으면 한다.

유영식_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국내에 너무나 영화제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2주 동안에도 네 개나 개최됐고, 가을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인데도 불구하고 규모나 예산상에서

최호정_젊은 건축사로서 바람이 있다. 협회가 우리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경제 개념을 갖고 마케팅을 적극 할 필요가 있다. 건축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는 크지만 건축사의 우리의 사회적 위치는 그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건축계의 선후배들이 마케팅 개념으로 우리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지고 우리 자신의 안목이 더 많이 깨어났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건축사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며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